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5월 2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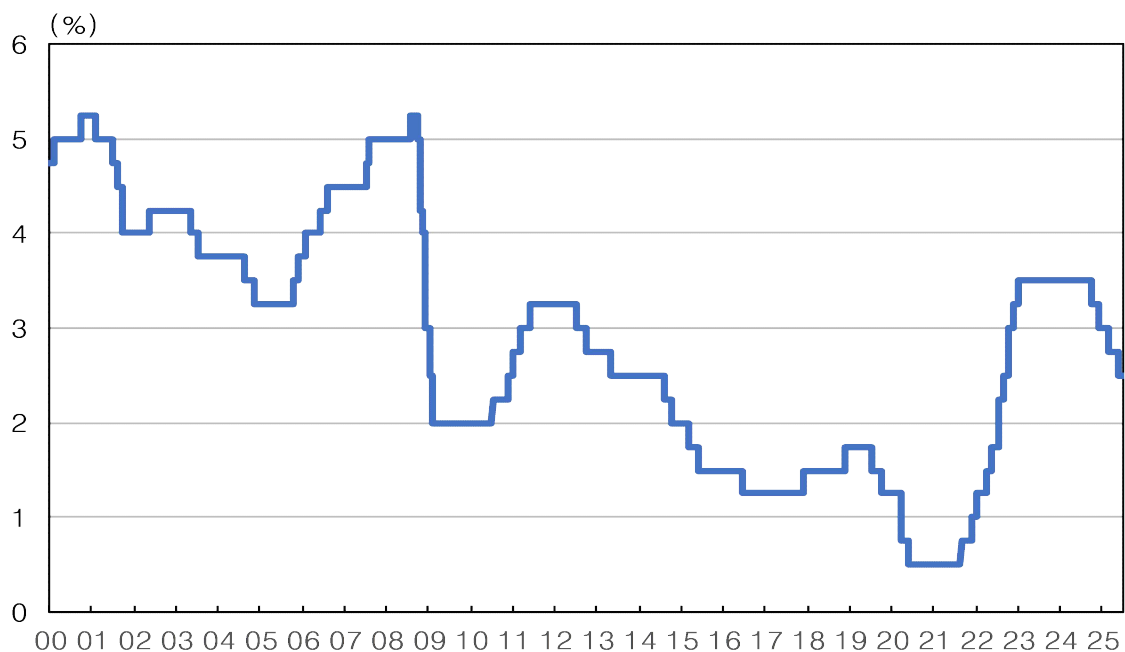
(붙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sup>1)</sup>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2/4	3/4	4/4	25.1/4	25.2월	3월	4월
미국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2.9	2.8	3.0	3.1	2.4	-0.3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3.4	3.0	0.8	1.4	1.8	0.4	0.0	1.7	0.1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0.2	-0.3	0.6	-0.1	-0.3	1.3	0.9	-0.3	0.0
	ISM제조업 <sup>2)</sup> (기준=50)	47.1	48.2	48.5	47.3	48.2	50.1	50.3	49.0	48.7
	실업률 <sup>1)</sup> (%)	3.6	4.0	4.0	4.2	4.1	4.1	4.1	4.2	4.2
	비농기취업자수증감 <sup>1)</sup> (전기비, 만명)	334.3	208.1	51.4	33.8	50.9	54.3	10.2	18.5	17.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3.2	2.6	2.7	2.7	2.8	2.4	2.3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4	3.3	3.3	3.1	3.1	2.8	2.8
유로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0.4	0.9	0.7	1.7	1.0	1.3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1.9	1.2	0.3	1.0	0.5	0.1	0.2	-0.1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1.6	-3.0	0.0	-0.5	-0.1	2.2	1.1	2.6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5.0	45.9	46.3	45.5	45.4	47.6	47.6	48.6	49.0
	실업률 <sup>1)</sup> (%)	6.6	6.4	6.4	6.3	6.2	6.2	6.2	6.2	..
	수출 <sup>1)3)</sup> (전기비, %)	-0.8	0.5	0.6	-0.7	0.8	7.6	5.1	2.9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5	2.2	2.2	2.3	2.3	2.2	2.2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2.8	2.8	2.7	2.6	2.6	2.4	2.7
일본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1.4	0.2	3.8	1.0	2.4	-0.7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5.7	2.3	1.6	0.8	0.2	1.5	0.4	-1.2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1.4	-3.0	2.1	0.3	0.4	-0.3	2.3	0.2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0	49.1	50.0	49.5	49.3	48.7	49.0	48.4	48.7
	수출 <sup>1)</sup> (전기비, %)	2.8	6.0	3.8	0.4	0.8	3.4	5.0	-4.3	-2.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7	2.8	2.9	3.8	3.7	3.6	3.6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1.8	1.6	1.6	1.5	1.5	1.6	1.6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4.7	4.6	5.4	5.4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7.2	3.5	2.6	2.7	3.8	4.9	4.0 <sup>5)</sup>	5.9	5.1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4.6	5.8	5.9	5.0	5.6	6.8	5.9 <sup>5)</sup>	7.7	6.1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7	49.7	49.8	49.4	50.2	49.9	50.2	50.5	49.0
	수출(전년동기비, %)	-4.7	5.8	5.7	5.9	9.9	5.7	-3.0	12.3	8.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3	0.5	0.2	-0.1	-0.7	-0.1	-0.1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1.6	-1.8	-2.6	-2.3	-2.2	-2.5	-2.7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sup>4)</sup> (전년동기비, %)	-1.1	2.3	2.2	2.9	2.9	..	3.7	..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5) 1~2월 기준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지표

		2024	25.1월	2월	3월	4.16일	4월	5.28일
국채금리 <sup>1)</sup> (%)	미국(2년물)	4.24	4.20	3.99	3.88	3.77	3.60	3.99
	미국(10년물)	4.57	4.54	4.21	4.21	4.28	4.16	4.48
	독일(10년물)	2.37	2.46	2.41	2.74	2.51	2.44	2.55
	영국(10년물)	4.56	4.54	4.48	4.67	4.60	4.44	4.73
환율 <sup>1)</sup>	달러인덱스	108.5	108.4	107.6	104.2	99.4	99.5	99.9
	신흥시장국 <sup>2)</sup>	42.8	43.5	44.0	44.6	44.7	45.2	45.5
	엔/달러	157.2	155.2	150.6	150.0	141.9	143.1	144.8
	위안/달러	7.30	7.24	7.28	7.25	7.31	7.27	7.19
주가 <sup>1)3)</sup>	전세계	841.3	869.0	863.0	827.2	791.1	833.5	876.4
	선진국	3707.8	3836.6	3805.3	3628.6	3468.5	3655.5	3845.7
	신흥시장국	1075.5	1093.4	1097.3	1101.4	1059.1	1112.8	1163.8
VIX <sup>1)</sup>		17.4	16.4	19.6	22.3	32.6	24.7	19.3
CDS프리미엄 <sup>1)</sup> (bp)	신흥시장국	172.5	160.1	156.1	184.5	212.0	198.9	170.5
	중국	66.0	56.5	48.0	52.0	68.9	61.9	51.7
	한국	37.8	32.9	29.0	38.7	36.4	32.5	29.6
유가 <sup>1)4)</sup> (달러/배럴)	WTI	71.7	72.5	69.8	71.5	62.5	58.2	61.8
	Brent	74.1	76.9	73.4	77.2	67.6	63.2	65.5
	Dubai	75.1	75.5	73.2	73.6	66.1	62.1	62.6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67.9	-7.9	-161.2	40.2	166.9 <sup>5)</sup>	175.7	-50.3 <sup>6)</sup>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현물 기준

5) 25.4.2~25.4.16일 기준

6) 25.5.7~25.5.27일 기준

##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 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 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3	2024	24.2/4	3/4	4/4	25.1/4	25.2월	3월	4월 <sup>6)</sup>
GDP 성장률 <sup>1)</sup>	1.4	2.0	-0.2	0.1	0.1	-0.2	-	-	-
(민간소비)	1.8	1.1	-0.2	0.5	0.2	-0.1	-	-	-
(설비투자)	1.1	1.6	-1.2	6.5	1.2	-2.1	-	-	-
(건설투자)	1.5	-3.0	-1.7	-3.6	-4.5	-3.2	-	-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3	-2.1	-0.3	0.7	-0.4	0.7	1.9	-0.3	..
설비투자지수 <sup>2)</sup>	-4.8	2.9	-1.4	10.2	-1.8	-1.9	21.3	-0.9	..
건설기성액 <sup>2)</sup>	7.8	-4.7	-8.2	-3.8	-5.1	-6.1	2.4	-2.7	..
수출(통관) <sup>3)</sup>	-7.5	8.1	10.1	10.5	4.2	-2.2	0.7	2.8	3.7
- 일평균 <sup>3)</sup>	(-6.8)	(8.1)	(10.9)	(10.5)	(2.7)	(2.4)	(-6.2)	(5.2)	(-0.6)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2.6	4.2	1.8	-0.8	2.1	0.5	1.2	3.2	..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3.4	1.1	0.0	-0.3	0.7	0.3	0.9	-0.3	..
소비자심리지수 <sup>4)</sup>	97.4	100.0	100.0	101.5	96.9	93.3	95.2	93.4 93.8	101.8
기업심리지수 <sup>4)5)</sup>	90.5	92.8	95.4	93.4	90.3	90.3	90.1	91.9 93.1	94.7
취업자수 증감 <sup>3)4)</sup>	32.7	15.9	14.6	14.6	5.2	15.5	13.6	19.3	19.4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8	62.7	62.5	63.0	63.0	63.0	63.1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2.8	2.5	3.0	2.8	2.7	2.9	2.7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6) [ ]내는 25.5월

## [ 물 가 ]

-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2.8%)보다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3	2024	24.2/4	3/4	4/4	25.1/4	25.2월	3월	4월 <sup>4)</sup>
소비자물가 <sup>1)</sup>	3.6	2.3	2.7	2.1	1.6	2.1	2.0	2.1	2.1
	-	-	(0.3)	(0.4)	(0.2)	(1.2)	(0.3)	(0.2)	(0.1)
▪ 농축수산물	3.1	5.9	8.6	3.4	1.6	1.2	1.0	0.9	1.5
▪ 공업제품	2.6	1.5	2.1	1.4	0.6	2.0	2.0	1.7	1.5
(석유류)	-11.1	-1.1	2.9	0.0	-5.2	5.4	6.3	2.8	-1.7
(석유류 제외)	4.8	1.9	2.0	1.6	1.4	1.5	1.5	1.6	1.9
▪ 전기·수도·가스	20.2	3.5	3.1	2.4	3.0	3.1	3.1	3.1	3.1
▪ 서비스	3.3	2.2	2.2	2.2	2.1	2.2	2.1	2.3	2.4
(공공서비스)	1.3	1.7	2.2	1.5	0.9	1.0	0.8	1.4	1.3
(개인서비스)	4.8	3.0	2.8	3.0	2.9	3.1	3.0	3.1	3.3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2.2	2.1	1.8	1.9	1.8	1.9	2.1
(관리물가 <sup>2)</sup> 제외)	3.9	2.1	2.2	2.1	1.9	1.9	1.8	1.8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2.1	2.0	1.8	2.0	1.9	2.1	2.4
기대인플레이션율 <sup>3)</sup>	3.5	3.0	3.1	2.9	2.8	2.7	2.7	2.7	2.8[2.6]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 ]내는 25.5월

## [ 금융안정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무역갈등 완화, 아시아 통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고, 장기국고채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주가는 기업 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 국내금융지표

	2024	25.1월	2월	3월	4.16일	4월	5.28일
국고채금리 <sup>1)2)</sup> (3년물, %)	2.60	2.57	2.57	2.57	2.35	2.27	2.31
국고채금리 <sup>1)2)</sup> (10년물, %)	2.86	2.86	2.71	2.77	2.63	2.56	2.71
통안증권금리 <sup>1)2)</sup> (91일물, %)	2.96	2.87	2.76	2.65	2.50	2.49	2.51
CP금리 <sup>1)2)</sup> (91일물, %)	3.58	3.25	3.05	3.00	2.93	2.93	2.93
회사채금리 <sup>1)3)</sup> (3년, AA-, %)	3.28	3.17	3.14	3.12	2.91	2.85	2.86
(3년, BBB-, %)	9.05	8.96	8.92	8.90	8.67	8.62	8.64
KOSPI <sup>1)</sup>	2399.5	2517.4	2532.8	2481.1	2447.4	2556.6	2670.2
원/달러 환율 <sup>1)</sup>	1472.5	1452.7	1463.4	1472.9	1426.7	1421.0	1376.5
원/100엔 환율 <sup>1)</sup>	948.8	939.0	975.4	989.7	1,002.1	966.8	953.5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2.3	-1.5	-4.1	-2.2	-10.2 <sup>4)</sup>	-10.4	1.5 <sup>5)</sup>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5.4.1~25.4.15일 기준      5) 25.5.1~25.5.28일 기준

- 주택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여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2/4	3/4	4/4	25.1/4	25.2월	3월	4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24.1	19.4	-1.1	9.2	3.5	-2.1	14.4
▪ 대기업	31.9	26.7	8.3	7.1	-1.2	5.7	0.4	-0.7	6.7
▪ 중소기업	45.5	40.6	15.9	12.2	0.1	3.5	3.1	-1.4	7.6
은행 가계대출 증감 <sup>1)</sup> (조원)	36.9	46.0	16.9	20.2	5.3	4.4	3.2	1.6	4.8
▪ 주택담보대출 <sup>1)</sup>	51.6	52.1	16.4	19.8	5.8	7.6	3.4	2.5	3.7
▪ 기타대출 <sup>2)</sup>	-14.5	-5.9	0.5	0.5	-0.4	-3.2	-0.2	-0.9	1.0
주택 매매가격 <sup>3)</sup> (%)	-3.6	0.1	-0.0	0.6	0.0	-0.1	-0.1	0.0	-0.0
▪ 수도권 <sup>3)4)</sup>	-3.6	1.4	0.2	1.3	0.3	0.1	-0.0	0.2	0.1
(서울) <sup>3)</sup>	-2.0	3.2	0.6	2.1	0.6	0.7	0.2	0.5	0.2
▪ 지방 <sup>3)5)</sup>	-3.5	-1.0	-0.2	-0.2	-0.3	-0.4	-0.1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